

샬롬~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(디모데전서 1 장 2 절).

올 한 해에도 동행하시며 힘 주신 주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고, 함께 걸으며 부족한 저희를 위해 기도와 물질로 힘을 실어주신 여러분께도 큰 감사를 드립니다. 사역을 핑계로 많은 시간을 주님과 함께 하지 못한 점이 가장 아쉽지만, 주님은 늘 함께 하시니 죄송하고도 감사할 뿐입니다. 새해에도 예수님 바라보며 또 다시 전진합니다.



1. **미션 클리닉 사역** --- 전문의가 필요한 지역에 클리닉을 세우는 이 사역을 하나님께서 귀히 보십니다. 함께 하던 소아과 의사가 떠나게 되어 지난 번 편지에 새로운 소아과 의사를 위해 기도를 부탁드렸는데 (주위에서는 이런 시골에 올 수 있는 자가 절대로 없다 하였으나), 하나님께서 놀라움게 역사하셔서 1 월 2 일부터 새 소아과 의사가 진료하게 되었습니다. 할렐루야~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중보기도에 응답하셨습니다. 이 일은 이 곳 지역 사회에 크게 도움이 되는 일입니다. 수도에 있는 카톨릭 아동병원과는 몇 년 전의 화산 대폭발 이 후 이동의료사역과 장애사역으로 오랜동안 협력하는 관계인데, 그 곳에서 전문의 과정 4 년차에 있는 의사를 보내주겠다 하여 얼마나 놀랐는지 모릅니다. 보통 전문의가 없는 시골 독립병원으로 파견나가는게 규정인데, 전혀 예상치 못한 일을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. Gracias a Dios~~ 전에는 일주일에 이틀이나 사흘만 진료하였는데 이제는 풀타임/1 년 계약으로 진료하게 되는 것을 보니 하나님께서 이 곳 호수 마을

주민들을 너무도 사랑하시는 것 같습니다. 이제 다시 소아과, 내과, 한방과, 심리치료, 물리치료 등으로 통합진료를 하게 됩니다. 더 나아가, 현재 주민들이 가장 많이 요청하는 <여자> 산부인과 의사를 위해서도 기도 부탁드립니다 (여기는 아직도 산파가 출산을 돕는 실정입니다).

2. **이동의료 사역** --- 이동의료사역은 늘 저희와 지역 주민들에게 기쁨을 줍니다. 이번에 시카고에서 온 덴탈팀과 호수 주위 두 곳의 장애센터와 산골마을 교회를 돌며 주님의 사랑을 전했는데, 한 번도 치과 진료를 못 받았던 장애아동들에게는 참으로 큰 축복이었습니다. 긴장하는 아동들을 위해 미국서 준비해 온 선글라스와 풍선과 선물 등으로 푸근한 분위기를 만들어주면서 노련한 치과선생님의 사랑의 손 끝으로 무사히 치루어진 치과사역은 긴장이 아니라 기쁨의 시간이었습니다. 돕는 자나 도움 받는 자 모두 행복한 시간을 보내게 되어 더욱 감사합니다.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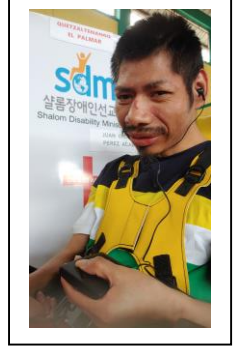
지난 번 편지에 말씀드린 호수 너머 산골 마을 출신 청년이 있는 교회에서 두 번째 치루어진 의료 사역에서도 많은 아동들이 처음으로 치과 진료를 받게 되어 감사했습니다. 한편, 너무도 열악한 주일학교 환경 영상을 보고 워싱턴에 있는 고교생들의 NGO 인 **Back To School Together** 에서 이 곳 교육을 위해 인터넷 설치와 성경, 그리고 새 프로젝터를 기증하게 되어 더욱

감사합니다. 이 곳의 많은 아동들이 귀한 학업 도구들을 가지고 하나님을 더 잘 배우게 되기를 바랍니다.





3. **장애 사역** --- 9 월에는 아동병원에서, 10 월에는 두 곳의 쉼라 지역에서 단체로 보급된 특수 휠체어 사역에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내리셔서 많은 장애우들이 혜택을 받았습니다. 16 년 간 작은 유모차만 타던 소녀가 스스로 휠체어를 운전하는 모습에 모두 뭉클했고, 새 휠체어에 앉아 오디오 성경 이어폰을 받아 귀에 꽂고 행복해하는 젊은이도 감동을 줍니다. 모두가 감사해하며 행복해했습니다. 이를 위해 매 달 도움을 주시는 **살롬 장애인 선교회**와 **과테말라 선교회**에 감사드립니다.



4. **의료 선교사 제자 양성 사역** - 미국과 한국에서 저희를 후원하는 치과

의사분들이 1 월부터 시작하려 했던 온라인 강좌를 위해 기도해주시요. 이곳 젊은 의사들의 부족한 책임감과 신뢰도로 인해 좀 더 연구를 해야 할 필요가 생겼습니다. 기도하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. 아무쪼록 이 강좌를 통해 저들의 진료 실력 향상 뿐 아니라 앞으로 저들이 스스로 의료 사역자가 될 수 있는 동기가 부여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. 한편, 새로 오는 소아과 의사 플라우디아가 예수님의 의사 제자로 잘 양성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.

< 기도제목 >

- 새해에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들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기도드립니다. 협력하는 모든 동역자들과 후원자들을 축복하소서
- 1 월부터 합류하는 소아과 의사 플라우디아를 축복하셔서 이 곳 커뮤니티에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하나님의 클리닉이 되기를 소망합니다.
- 모든 사역들을 통하여 주님의 복음과 사랑이 전달되기를 소원합니다.
- 새해에도 신변 안전과 영육의 강건함을 허락하소서.
- 한국에 계신 어머니의 강건함과, 시카고와 엘에이에 있는 자손들의 건강/신앙/비전을 위하여 기도합니다.



DIOS ES BUENO

